

쉬리의 세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너는 하늘빛을 머금은 호수 저편에서

도도한 생을 유명하는지도 모르지

좀처럼 너를 볼 수 없었던 까닭은

너를 보는 이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

먼저 돌아섰기 때문이거나

애써 너를 보려고 하지 않는 탓이다

외로운 쉬리

구름이 달을 가려 인적이 드문 밤에도

너의 정적(靜寂)은 계속된다

자정(自淨)의 근원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동네 여울마다 호리한 자세로

뒤척이는 물길을 버티어 낸 이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

쉬리의 세계는

구부러지지 않아 곧게 편 하늘빛 무늬가 엮어낸 추상이다

지천으로 널린 자신의 알들이

끈기있게 강바닥에 달라붙어

지나가는 물들의 옷을

파아란 색으로 물들일 때마다

비로소 너는 웃는다

참으로 너를 만나는 순간이다